

## 제 8 강 현상학 II : 메를로-퐁티

### ◆메를로-퐁티의 몸 철학◆



메를로-퐁티

※ 메를로-퐁티(Maurice Merleau-Ponty, 1908-1961) 후설과 베르그송<sup>1)</sup>의 영향. 전기는 '몸과 지각'에 대해, 후기는 '살(la chair)과 봄(la vision)'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다.

#### △ 몸과 지각

##### 1) 몸의 두께

- 지금의 나 속에 과거의 나, 미래의 나가 포함돼 있다. **잠재된 나**의 존재. 한 인간의 삶은 그 몸의 두께로 결정된다. **두툼한 나**.

##### 2) 몸틀(능습관)

- 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의 기초.
- **체화**된 행위.
- 몸의 구조화, 형태화.
- 주어진 상황과 내 몸이 잘 일치될 때,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다. 즉, 상황에 따른 몸틀이 각각 존재, 이러한 몸틀이 얼마나 미세하게 구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이 바뀐다. (ex, 연륜, 육감 등.)

---

1) Henri Bergson (1859-1941) 프랑스의 철학자. 과정철학이라 부르는 철학사조를 최초로 정교하게 발전시켰다. 정지보다 운동, 변화, 진화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으며 학문적, 대중적 호소력을 겸비한 문체의 대가였다.